

보도자료

2010년 5월 6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 과장(☎ 750-2250)
전파방송관리과 이주식 사무관(☎ 750-2254) jooshik.lee@kcc.go.kr**“세계최초 지상파 3DTV 시범방송”****- 지상파 방송4사 공동 참여로 3D 방송 활성화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세계 최초로 5월 19일부터 지상파 3DTV 시범방송을 실시하며,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4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에 KBS, SBS는 각각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프리챔피언십 및 남아공 월드컵 경기의 3D 중계를 위해 지상파 임시채널을 신청한 바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에서 3DTV 시범방송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방송사의 기술적 준비 상황과 3D 방송콘텐츠 제작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금번 3DTV 시범방송이 3D 방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으고 3D 산업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3DTV 임시채널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지상파 4사의 3DTV 시범방송은 5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별도 채널 66번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3DTV를 보유한 가정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지상파 방송 4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제작 중인 다양한 장르의 3D 방송콘텐츠를 내보낼 예정이며,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프리챔피언십 및 남아공 월드컵 25개 경기가 3D 실시간 중계로 방송될 계획이다. 각 사의 콘텐츠 보유량을 고려하여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3시간 동안 방송되고, 남아공 월드컵 기간인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지상파 정규방송시간과 동일하게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지상파 3DTV 시범방송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며, 지상파 4사의 공동 참여로 국내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3D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에 발표한 3D 산업발전전략에서 3D 방송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HD급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추진 등 3D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차세대 3DTV 방송 표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 <참고> ○ **금번 3DTV 시범방송** : 현재 스카이라이프에서 3D 시범서비스 중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기존 DTV에서는 해당채널이 분할영상으로 보여 별도 채널이 필요

○ **10월 실시 예정인 HD급 3DTV 실험방송** : 기존 방송채널에서 HD급 3D 방송이 가능하고 기존 DTV에서는 분할영상이 아닌 HD급 2D 방송으로 시청 가능한 새로운 3D 방송방식으로 상용화될 경우 기존 채널로 2D, 3D 동시 방송 가능

<참고>

○ 지상파 3DTV 시범방송 기간 : 5.19 ~ 7.12

- 방송시간 : 【5.19~6.10】 19:00 ~ 22:00,

【6.11~7.12】 지상파 정규방송 시간(06:00 ~ 익일01:00*)

* 생중계시 연장

○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프리챔피언십 3D 생중계 : 5.19일 (19:00 ~ 21:30)

○ 남아공 월드컵 3D 생중계 : 6.11 ~ 7.12